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A Survey on the Family Concepts and Values among the Citizens of Seoul*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선임 연구원 유계숙
소장 유영주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Yoo, Gyesook

Director : Yoo, Youngjoo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family concepts and values are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using data from a sample of 999 residents aged 14 to 89 year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amily concepts of the subjects imply marital and/or parent-child relationships with normative gender role. People tend to regard divorced, remarried, and adopted members as families, while classifying gay/lesbian couples, members living together in a communal fashion, and single households into nonfamily groups. People evaluate that the current Korean family doesn't adequately meet the functional needs of families in emotional support, solidarity, recreation, leisure, social and economic security, and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ulture. Mor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가족개념(family concept), 가족가치관(family value), 가족이데올로기(family ideology), 정상가족(normal family)

* 본 연구는 2001년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만큼 가족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경험인 동시에 사회·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수한 경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가족은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서구가족의 경우처럼 가족의 혈연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는 없지만, 전통가족과 비교해볼 때 친족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세대별 구성이 보다 단순해지면서 가족의 경계가 공간적으로는 축소되고 시간적으로는 현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는 전통사회에 비하여 소비 기능, 부부간의 성적 만족 기능, 자녀양육 기능,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및 여가 기능, 지위계승 기능이 강화된 반면, 생산 기능, 성 규제 기능은 약화되고, 자녀 사회화 기능, 사회보장 기능, 성역할 사회화 기능 등은 왜곡되었다(함인희, 1995).

이처럼 가족의 구성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빈번하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족학 분야의 연구대상이자 분석단위인 '가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어떠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가족학자들은 '가족'에 관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 보다 근접할 수 있고, 가족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미래 사회의 가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다.

'가족'이라는 개념과 같은 사회과학적 모델은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의 상식적 이론, 즉 민간모델로부터 출발하며,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민간모델을 통하여 가족과 관련된 사회성원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그들이 지니는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파악한다. 가족학 분야의 후기실증주의 이론가들은 가족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관점을 무시하지 않고 연구 주제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들의 연구 접근법은 크게 인지적 접근과 담론적 접근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Cheal, 1991), 인지적 접근에서는 가족에 대한 상식적 지식을 가족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정신적 구성물로 묘사하며(Bernardes, 1988), 담론적 접근에서는 가족에 대한 진상과 사실은 그 가족 안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인식론의 전제 하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정 안팎의 인간관계를 명칭하고, 관계를 이해시키며, 가족원들의 행동과 태도를 묘사하는 특별한 담론의 일부로 받아들인다(Gubrium & Holstein, 1990).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는 개인적 의견의 수준으로부터 사회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하위영역으로서의 이데올로기 수준까지 위계적 구조를 가지며(김명훈·정영윤, 1983; Eysenck, 1964), 사회심리학적 관점(Freedman, Sears, & Carlsmith, 1981)을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인지적 요소(예, 가족에 관한 지식, 개념, 사고, 의견 등), 정서적 요소(예, 가족에 관한 느낌, 이미지, 긍정적·부정적 평가나 감정 등), 행동지향적 요소(예, 남아선호, 가족이기주의행동 등과 같이 특정 양식으로 반응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족제도의 당위성, 가정성(domesticity),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를 강조해온 우리 사회의 특성은 인지적 측면의 가족개념(유영주, 1990; 홍은표, 1984)이나 정서적 측면의 가족이미지(조은숙·옥선화, 1995)에 비하여 규범적·행동지향적 측면의 가족가치관(고정자, 1979; 김경신, 1998; 김순옥·조희선·류경희·유현정·이나미, 1995; 박혜인, 1989; 신수진, 1998; 옥선화, 1989)에 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과 연구를 집중시켜왔으며,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나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당사자인 가족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가족개념 및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결혼 및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살펴보고, 가족의 제 기능에 대한 요구도와 우리나라가

족의 기능 수행도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정의하는 형태적·기능적 측면의 가족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세대간 갈등이나 '비주류 가족'의 소외와 관련된 가족가치관으로서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생활 방식의 변화와 다양화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념과 가치관을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가족개념

보편적으로 볼 때 가족에 관한 개념 속에는 형태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형태적 의미라 함은 가족이 어떤 관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냐 하는 것이고, 기능적 의미는 그것이 개인에게나 사회에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박민자, 1995). 따라서 가족개념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단일한 형태와 고정된 기능을 가진 가족보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나 기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의 기능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의 태도를 조사한 김선희(198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적 통제 기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도시의 청소년들과 여학생들이 순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산 기능에 대해서는 가계계승보다 가정생활의 보람을 위해서 자녀에 대한 의미를 두었고, 교육적 기능에서는 부모

의 훈육 역할을 중시했으며, 경제적 기능에서는 여학생의 77.3%가 결혼 후 취업을 희망하였다. 홍은표(1984)가 4대 도시에서 10대 이상의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기능에 대한 기대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자녀교육 및 사회화 기능을 가장 중시하였고, 다음으로 경제적 기능, 자녀양육 기능, 노부모 봉양의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영주(1990)가 서울, 소도시, 농촌을 망라한 전국 규모의 1,077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의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 기능의 중요도 인식에서 애정 및 정서와 관련된 기능을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인 반면, 수행에 있어서는 자녀사회화에서 가장 높은 기능 수행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배우자편의 친척관계 유지 기능, 경제적 협력 기능, 종교·도덕적 기능, 정서적 지지 및 안식처 기능, 자녀교육 기능, 성과 애정의 기능, 본인편의 친척관계 유지 기능, 가계관리 기능, 애정 표현 기능의 순으로 나타나 의식과 행동의 격차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가족 기능 수행도는 30세 이하일 경우와 교육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종교를 가진 집단의 수행도가 높았고, 가족 기능의 중요도 인식에서는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 서울은 자녀교육 및 사회화 기능, 소도시는 경제적 기능, 그리고 농촌은 친척관계 유지 기능을 중시하였다.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서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족원들이 갖고있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 가족원들은 가족단위로서의 이미지와 다른 가족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발전시키며, 이렇게 발전된 이미지는 다른 가족원들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결정한다. 성원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그가 가족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가족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는 가족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Hess & Handel, 1959). 이처럼 가족과 관련된 이미지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구성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요인들은 이미지를 창출하는 주체인 가족원 자신과 그 대상인 가족 자체를 반영한다(Galvin & Brommel, 1986). 조은숙과 옥선화(1995)가 50대와 20~30대의

기혼남녀 16명을 대상으로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면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는 성원들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남성은 부계중심적 혈연공동체 및 가장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을 부여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한 반면,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혈연을 초월한 공동체적 삶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족을 애정공동체 및 의지와 도움을 교환하는 장(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족을 따뜻한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며, 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가족의 이상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인 초혼 남녀가 독신자나 이혼자, 또는 세대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비하여 가족을 보다 이상화한 데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풀이되며, 사례 수가 매우 적은 질적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람들이 갖고있는 전반적인 가족이미지를 파악하거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대규모 표집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갖고있는 가족개념이나 이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이란 개인이 가족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주체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신념체계로서 잠재적(潛在的) 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 사회, 국가, 민족 등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족가치관은 행동지향적으로 발현되어 집단적·현재적(顯在的) 형태의 가족이데올로기(또는 가족이념)로 기능한다(김명훈·정영운, 1983). 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과 관련된 특정 관심사에 대한 규범적 이해방식이자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원들은 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

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반응하게 된다. 가족이데올로기를 공유한 성원들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특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태도는 가족의 기능과 각 성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Galvin & Brommel, 1986; Hess & Handel, 1959).

가족가치관은 국내에서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분류를 하고 있으나, 이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김경신, 1998). 특히 한국인의 혈연의식에 맞물린 가족주의 가치관은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부상하였으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대간의 경험의 단절로 인한 가족주의 가치관의 갈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박혜인, 1990).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와 지속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며,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및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가족성원들이 꾸준히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에 기반한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부계혈통, 장유유서(長幼有序)와 효(孝), 조상숭배 및 부계가문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한국가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왔다(신수진, 1998). 특히 효(孝)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중심으로 한 우리 집, 우리 가문과 다른 집, 다른 가문간에 차별이 생기며, 항상 우리 가족이 모든 면에서 우선 순위에 놓이게 된다(최준식, 1998). 따라서 전통적 가족주의의 특징은 사회의 구성단위를 집(家)으로 보고, 어떤 사회 집단보다 집(家)이 중시되며, 개인은 집(家)에서 독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계중심의 조상숭배를 중요시하고, 가족 내의 인간관계는 상하서열이 있으며, 이러한 서열구조가 외부사회로까지 확대된다(최재석, 1965).

대구 지역의 도시와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을 조사한 박혜인(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시 여성들은 장남 동거에 부정적이고, 가족 위주의 배우자 선정을 거부하며, 시가보다 친정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가계계승을 위한

자녀관의 부정, 가족의 관심사보다 개인의 관심사를 우선하는 근대적 지향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진 반면, 농촌 여성들은 직업 선택과 배우자 선택에서만 가족이나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개인보다 가족의 관심을 우선시 하며, 부계제와 시가 우선의 원리에는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하는 과도기적 상태의 가치관을 나타냈다. 옥선화(1989)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 우선성 의식, 부계가문의 영속화 의식, 부모공경 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의 사회·경제적 유대 의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도시보다 농촌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성과 세대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서 부부 및 고부간에 가족주의 가치관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신수진(1998)이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60대 성인 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의 하위영역은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주의, 가족 우선성 의식, 가통의 계승과 발전 의식으로 구분되며, 세 가지 하위영역 중 가족 우선성 의식(평균=3.4)이 가장 강했고, 다음으로 가통의 계승과 발전 의식(평균=3.05),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주의(평균=2.85)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에서 강조하는 부계혈통 및 가문의 영속성은 혈연과 혼인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만을 가족의 범주로 규정하는 또 하나의 이념을 만들어낸다. 즉 특정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문화적 이상형을 '표준가족(benchmark family)'이라 하며(Cheal, 1991), 그에 대한 신념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류 정상가족으로 여겨지는 '부부와 그들이 낳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이외에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동거부부, 미혼부·모, 동성애 커플 등 가족 형태가 지속적으로 다양화하면서 가족학자들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지 연구된 바가 없으며, 이혼, 입양, 동성애, 동거, 미혼부모 등의 형태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

아들여질 정도로 정착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성원들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관계 및 가족 형태에 관한 가치관으로서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및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및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및 가치관은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 11월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60대 이상의 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으로 다양한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10대는 강남·강북 소재 5개 고교의 학생들에서, 20대는 서울 소재 3개 대학의 학생들과 종로·명동의 직장인들에서, 30~50대는 강남·강북 소재의 직장, 관공서, 자영업소, 학교, 복지관, 교회, 학부모 모임 등에서 표집하였고,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강북 소재 2개 노인복지관과 1개 노인정에서 표집하였다. 배부된 질문지 중 회수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기재를 한 29명을 제외하고 총 999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만 36.75(표준편차 16.98, 범위 14~89세)세였으며, 10대를 제외한 20대 이상의 성인 806명 중 초혼자는 57.3%, 미혼자는 29.3%, 별거·이혼·사별·재혼·동거·미혼부는 12.3%이었고, 교육 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이 각각 11.9%, 27.8%, 59.8%이었다. 응답자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999)*

사회인구학적 특징		연령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별	남		94(51.1)	96(47.3)	96(49.2)	101(49.3)	47(51.1)	50(45.0)
빈도(%)	여		90(48.9)	107(52.7)	99(50.8)	104(50.7)	45(48.9)	61(55.0)
만 연령 (세)	평균(표준편차)		16.82(.90)	24.13(3.01)	33.51(3.00)	44.32(3.04)	53.83(2.80)	70.61(6.97)
결혼지위 빈도(%)	미혼		182(100.0)	182(91.0)	45(23.1)	5(2.5)	2(2.2)	2(1.8)
	초혼		·	18(9.0)	147(75.4)	168(83.6)	74(81.3)	55(50.0)
	별거		·	·	1(.5)	5(2.5)	·	1(.9)
	이혼		·	·	·	12(6.0)	1(1.1)	5(4.5)
	사별		·	·	·	·	5(5.5)	36(32.7)
	재혼		·	·	·	8(4.0)	3(3.3)	2(1.8)
	동거		·	·	1(.5)	3(1.5)	6(6.6)	9(8.2)
교육수준 빈도(%)	미혼부·모		·	·	1(.5)	·	·	·
	중졸이하		·	·	2(1.0)	14(6.9)	6(6.5)	74(66.7)
	고재학·고졸		172(95.0)	29(14.5)	54(27.7)	83(40.7)	37(40.2)	21(18.9)
직업 빈도(%)	대재학·대졸이상		9(5.0)	171(85.5)	139(71.3)	107(52.5)	49(53.3)	16(14.4)
	전문직·행정관리직		·	36(17.7)	43(22.8)	53(26.4)	20(22.5)	3(2.8)
	사무직		2(1.0)	39(19.2)	36(19.0)	24(11.9)	7(7.9)	·
	판매직·서비스직		4(2.2)	26(12.8)	52(27.5)	76(37.8)	22(24.7)	3(2.8)
	농림어업·생산직·운수직·단순노무직		·	2(1.0)	12(6.3)	10(5.0)	11(12.4)	6(5.5)
	전업주부		·	3(1.5)	32(16.9)	35(17.4)	25(28.1)	6(5.5)
	학 생		179(96.8)	96(47.3)	9(4.8)	1(.5)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만원)	무직·실직		·	1(.5)	5(2.6)	2(1.0)	4(4.5)	91(83.5)
	평 균 (표준편차)		136.47 (296.82)	161.88 (97.81)	177.45 (93.93)	246.82 (131.40)	257.95 (119.07)	61.17 (64.03)
동거 가족원 수(명)	평 균 (표준편차)		3.78 (1.03)	3.55 (1.13)	3.23 (1.07)	3.43 (.87)	3.37 (.90)	2.98 (1.26)
종 교 빈도(%)	기독교		69(37.7)	81(40.1)	112(57.4)	51(25.0)	29(31.5)	24(21.8)
	불 교		22(12.0)	25(12.4)	14(7.2)	41(20.1)	14(15.2)	31(28.2)
	천주교		20(10.9)	21(10.4)	16(8.2)	44(21.6)	13(14.1)	17(15.5)
	무 교		69(37.7)	74(36.6)	51(26.2)	64(31.4)	33(35.9)	35(31.8)
	기 타		3(1.6)	1(.5)	2(1.0)	4(2.0)	3(3.3)	3(2.7)

* 각 변인에 대한 사례 수는 무응답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

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 29.3%, 전문직·행정관리직·사무직 26.9%, 판매 및 서비스직 18.7%, 무직·실직 10.5%, 전업주부 10.3%, 생산·운수 및 단순노무직 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84.01만원(표준편차 137.23, 범위 0~

1,500만원), 동거 가족원 수는 3.43명(표준편차 1.07, 범위 1~8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66.9%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의 37.0%가 기독교, 14.9%가 불교, 13.3%가 천주교, 1.7%가 기타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질문지는 가족의 형태(정현숙·유계숙, 2001; Klein & White, 1996)와 기능(김주수·김희배, 1986; 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및 정상성(Cheal, 1991)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6개의 척도와 신수진(1998)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척도의 점수범위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형태적 가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 척도는 20가지 형태의 다양한 성원 및 관계에 대하여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선택한 후 그 수를 합산한 것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다양한 성원들의 구성 및 관계를 가족의 범주로 수용함을 의미한다. 기능적 가족개념과 관련된 척도는 성원들을 위한 기능(11문항)과 사회를 위한 기능(6문항)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기능의 필요한 정도를 응답하고, 각각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가족의 기능과 관련된 4가지 척도에서 총점이 높을수록 성원과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 요구도가 높고, 현재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가족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유교적 전통의식과 가부장적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척도는 혈연중심의 초혼 핵가족에 대한 편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을 배제하고 획일적, 규범적 형태의 가족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개념 및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응답자들의 형태적 가족개념을 살펴보고자 20가지 다양한 관계의 구성 형태에 대하여 가족으로 규정한 빈도와 백분율을 크기 순으로 제시한 결과는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이다'라고 규정한 관계의 구성 형태는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1)을 비롯하여 편부모가족(2, 3, 6, 8), 재혼가족(4), 입양가족(3, 5), 삼세대 또는 성인기 형제관계로 구성된 확대가족(4, 5, 6),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8), 무자녀 별거부부(9)로 나타났다. 반면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형태를 살펴보면, 재혼을 앞둔 편부모가족(10), 사별한 처의 전혼자녀를 키우는 계부와 그의 동거녀로 구성된 관계(11), 공동체가족(12), 동성애 커플과 그들 각자가 낳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14), 사촌 이상의 친척관계로 구성된 확대가족(13, 15), 친지나 애완동물과 동거하는 단독노인가구(15, 17, 18), 전인척 관계였던 두 가족(16), 자신의 조상(19), 독신자가구(20)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와

<표 2> 측정도구의 점수범위와 신뢰도

척도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 척도	성원들을 위한 가족의 기능 요구도 척도	성원들을 위한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 평가 척도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 요구도 척도	사회를 위한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 평가 척도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척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척도
문항 수	20	11	11	6	6	20	10
척도 범위	0~1	1~5	1~5	1~5	1~5	1~5	1~5
총점의 범위	0~20	11~55	11~55	6~30	6~30	20~100	10~50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87	.84	.84	.84	.83	.89	.88

〈표 3〉 다양한 관계의 구성 형태에 대한 가족 규정 빈도 및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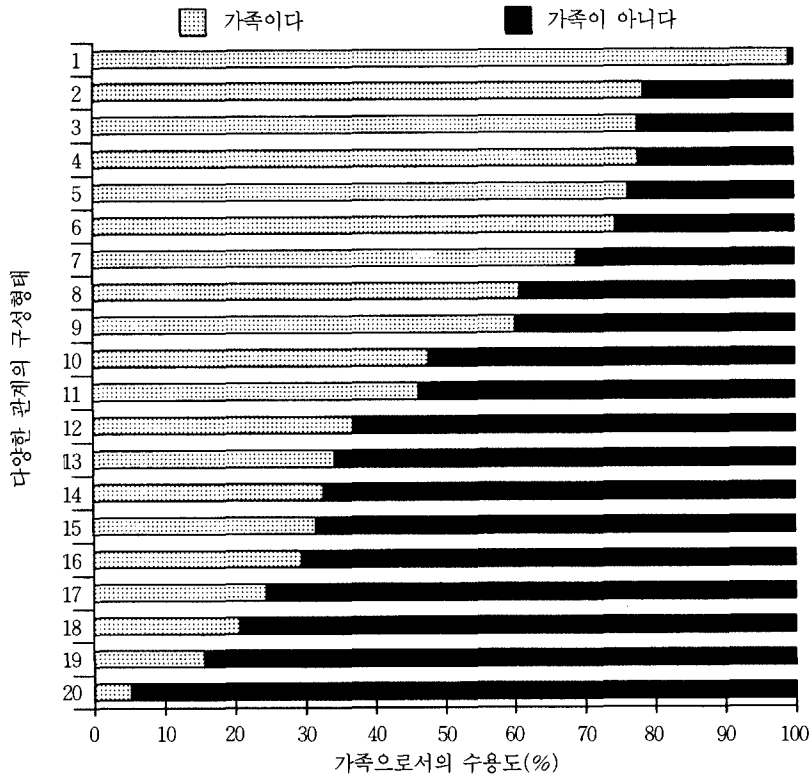
(N=999)

다양한 관계의 구성 형태		가족 규정 빈도	백분율
1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	991	99.3
2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사는 편모	784	78.6
3	어렸을 때 자신을 입양한 노모와 함께 사는 52세의 중년 여성	776	77.8
4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혼한 부부 (아이들끼리는 서로 이복/이부 형제간임)	776	77.8
5	입양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사는 노부부	761	76.3
6	시집가서 남편을 잃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사는 할아버지	744	74.5
7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세 명의 중년 자매들	688	69.0
8	정자은행을 통하여 출산한 아들과 함께 사는 미혼 여성	607	60.8
9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사는 자녀가 없는 부부	600	60.1
10	이혼한 남성과, 그가 사귀고 있는 여성과, 그녀가 키우고 있는 전남편의 아이 (이 남성은 그녀와 재혼하면 아이를 함께 키울 결심임)	476	47.7
11	계부와 그가 동거하는 여성과 함께 사는 아이(아이의 생모는 전남편인 생부와 이혼하고 현재의 계부와 재혼했으나 2년 전 병으로 사망했음)	462	46.3
12	서울 근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6명의 성인과 12명의 아이들	368	36.9
13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간의 두 남성	341	34.2
14	레즈비언(동성애) 커플과 함께 사는 그들의 아이들(한 여성의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다른 한 여성의 아이는 한 때 동거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임)	325	32.6
15	사별한 남편의 육촌 여동생과 한 집에 같이 사는 미망인	314	31.5
16	2년 전 교통사고로 함께 죽은 부부(자녀는 없음)의 양가 부모들	293	29.4
17	어릴 적 친구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77세의 할머니	244	24.4
18	남편과 사별하고 애완견을 키우며 사는 84세의 할머니	206	20.6
19	나와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나의 조상들	156	15.6
20	연애만 하며 혼자 사는 독신남	51	5.1

그들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99.3%)이 가족으로 규정함으로써 핵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가족'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실질적으로 부재하는 독신자가구나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의 조상들을 가족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에 관한 형태적 개념정의에 있어서 성원들간의 현재적 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동체가족이나 동성애 커플을 가족으로 규정한 비율은 30%대에 그친 반면, 편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입양가족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사람들

이 가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형태적 가족개념은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순수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한 개념에서 벗어나 이혼, 재혼, 입양 등에 의하여 형성된 관계도 가족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가족 구성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규범적인 성역할을 따르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기능적 가족개념을 살펴보고자 가족



<그림 1> 다양한 관계의 구성 형태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수용도

성원들과 사회를 위한 가족의 제 기능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가족이 그러한 기능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평가한 결과는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가족원 과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성원들을 위한 가족의 기능 중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은 기능은 애정교화와 정서적 지지·유대 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자녀 교육 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등이었으며, 종교적 기능, 성적 욕구의 충족 기능, 생산 및 소비 기능에 대한 요구도는 비교적 낮았다.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에서 상대적 요구도가 높은 기능은 사회 안정화 기능, 경제질서 유지 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 기능이었으며, 성적 욕구의 통

제 기능,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 기능, 노동력 제공 기능에 대한 요구도는 비교적 낮았다.

한편 이상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성원들을 위한 가족의 기능 수행 중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기능은 자녀출산 기능, 자녀의 교육 기능, 가족성원들과 재산 보호 기능,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소비 기능 등이었으며, 오락 및 여가 기능 수행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 중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 기능, 노동력 제공 기능 등의 수행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의 세대간 전달 기능과 사회 안정화 기능 수행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에 비하여 수행도 평가가 낮아 개선

〈표 4〉 가족의 제 기능에 대한 요구도 및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수행도 평가

(N=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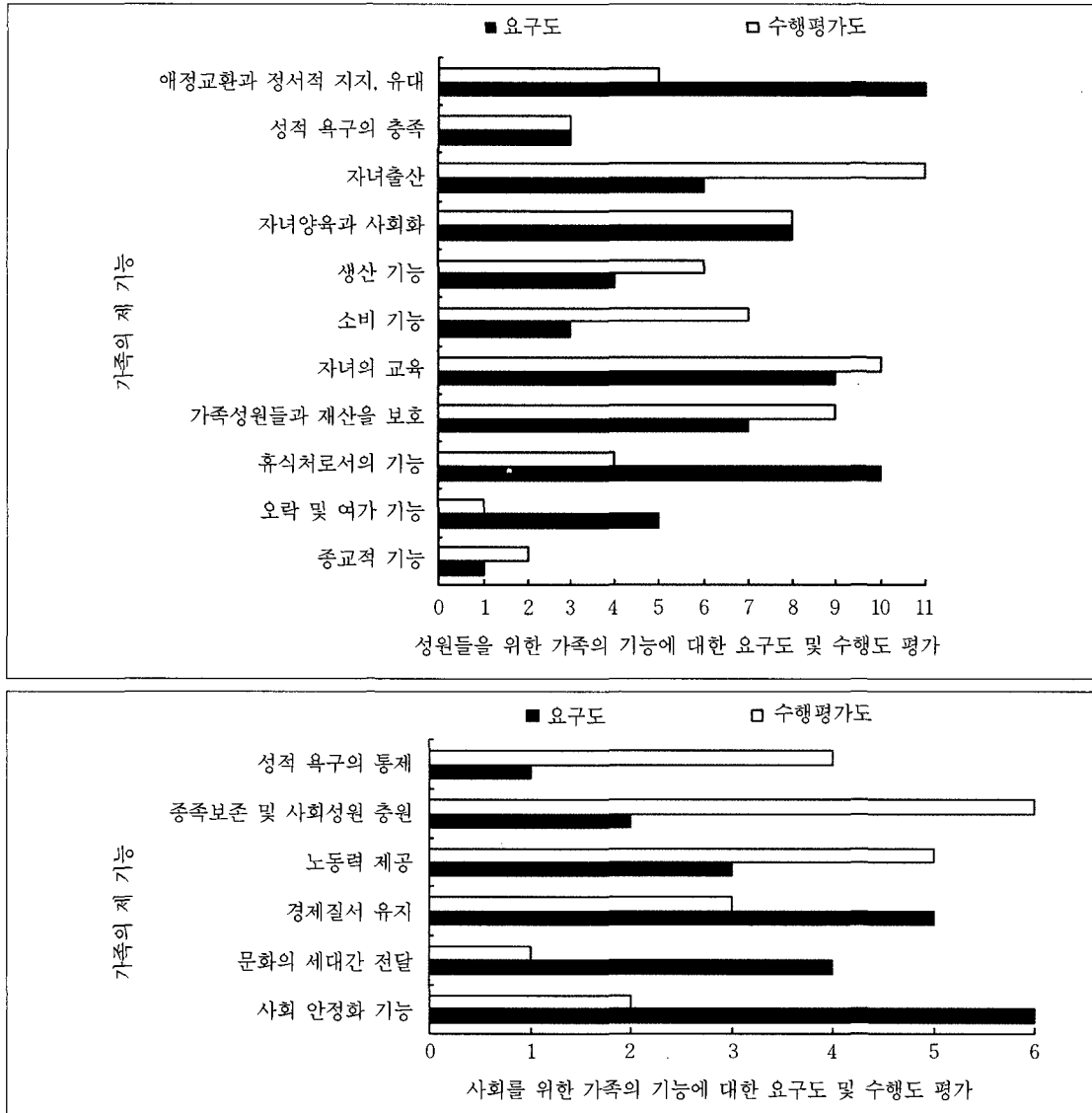
가족의 기능		기능에 대한 요구도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	
		평균(표준편차)	순위	평균(표준편차)	순위
성원들을 위한 가족의 기능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유대	4.51(.75)	1	3.21(.86)	7
	성적 욕구의 충족	3.89(.92)	9	3.15(.86)	9
	자녀출산	4.13(.85)	6	3.78(.83)	1
	자녀양육과 사회화	4.39(.76)	4	3.48(.88)	4
	생산 기능	3.94(.91)	8	3.33(.81)	6
	소비 기능	3.89(.85)	9	3.46(.87)	5
	자녀의 교육	4.46(.73)	3	3.72(1.00)	2
	가족성원들과 재산을 보호	4.26(.80)	5	3.52(.88)	3
	휴식처로서의 기능	4.47(.73)	2	3.18(.95)	8
	오락 및 여가 기능	4.05(.85)	7	2.90(.93)	11
	종교적 기능	3.51(1.16)	11	3.06(.89)	10
	성적 욕구의 통제	3.86(.92)	6	3.11(.90)	3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	3.91(.85)	5	3.42(.82)	1
	노동력 제공	3.99(.83)	4	3.36(.82)	2
	경제질서 유지	4.12(.85)	2	3.04(.90)	4
	문화의 세대간 전달	4.07(.85)	3	2.80(.87)	6
	사회 안정화 기능	4.23(.82)	1	2.97(.87)	5

이 요구되는 기능은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유대 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 기능, 경제질서 유지 기능이었으며, 성적 욕구의 통제 기능, 자녀출산과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 기능, 소비 기능, 노동력 제공 기능 등은 요구도에 비하여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민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은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주의, 가통의 계승과 발전 의식, 가족 우선성 의식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이들 요인은 전체변량의 53.16%를 차지한다. 응답자들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가치관은 가족 우선성 의식(평균=3.32, 표준편차=.92)이었으며, 가통의 계승과 발전 의식(평균=2.77, 표준편차

=.92)이나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주의(평균=2.23, 표준편차=.75)는 보통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중 부모와 자녀를 일체로 여기는 태도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남성의 외도를 묵인하거나 성(姓)의 본관과 양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응답자들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혈연중심의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유전적 공유 이데올로기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61.61%를 차지한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경향 중 두드러진 가치관은 '부모님 두 분은 함께 사셔야 한다' '형제들의 성(姓)은 같아야 한다' '아이들은 낳아준 부모가 돌봐야 한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성(姓)은 같아야 한다' 등과 같은 혈연중심의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평균=3.52, 표준편차=.81)였으며, 가족원들간의 외모의 유사성은 별로 중시하지 않았다(평균=2.73, 표준편차=1.06).



〈그림 2〉 가족성원들과 사회를 위한 가족의 제 기능에 대한 요구도 및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수행도 평가

2.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가족개념 및 가치관의 차이

형태적 가족개념(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과 기능적 가족개념(가족의 제 기능에 대한 요구도 및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수행도 평가) 및 가족가치관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경향이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각 척도에서 얻은 총점, 표준편차 및 범위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태적 가족개념으로서 가족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용도는 보통 수준

〈표 5〉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경향

(N=999)

가족가치관		평균(표준편차)	순위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를 맞추어야 한다 ^a	253(1.12)	9
	폐백은 여성이 남편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인사이므로 남성은 처의 부모에게 폐백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a	210(1.07)	17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청혼하는 것이 관례이다 ^a	256(1.18)	8
	딸이 잘 되기보다는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 ^a	218(1.17)	15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셋까지 낳을 수 있다 ^a	206(1.13)	18
	결혼식 절차는 신랑 측에서 주도한다 ^a	241(1.06)	10
	식사 메뉴는 가장이나 아들의 식성에 따라 정한다 ^a	229(1.10)	12
	재산상속은 장남을 위주로 한다 ^a	218(1.13)	15
	남성의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a	183(1.09)	20
	외동딸이라도 결혼을 하면 시부모를 우선적으로 모셔야 한다 ^a	240(1.11)	11
	자식이 없더라도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는 입양하지 않는다 ^a	223(1.11)	14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다 ^b	346(1.20)	1
	자식이 공부를 잘 하고 출세하는 것은 곧 부모의 성공이다 ^b	324(1.18)	3
	자식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 ^b	339(1.25)	2
	여성의 덕은 부모를 잘 모시고, 남편을 잘 내조하며,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있다 ^b	321(1.17)	4
	종친회 활동이나 족보사업에 관심이 있다 ^c	229(1.12)	12
	제사는 전통과 격식에 맞게 지낸다 ^c	271(1.25)	7
	조상의 업적이나 행적을 자랑스러워한다 ^c	290(1.12)	6
	부모 사후(死後) 3년상은 아니더라도 매사에 근신해야 한다 ^c	318(1.16)	5
	성(姓)의 본관이나 양반 여부를 따진다 ^a	198(1.05)	19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가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부모님이 계셔야 한다 ^d	345(1.18)	5
	가족에는 부모가 직접 낳은 자녀들이 있어야 한다 ^d	340(1.16)	6
	아버지와 자녀들의 성(김, 이, 박씨 등)은 같아야 한다 ^d	369(1.13)	4
	형제들의 성(김, 이, 박씨 등)은 같아야 한다 ^d	375(1.09)	2
	부모님과 아이들의 얼굴 생김새는 닮아야 한다 ^e	277(1.11)	9
	형제들의 얼굴 생김새는 닮아야 한다 ^e	270(1.08)	10
	가족들은 모두 한 집에 살아야 한다 ^d	304(1.13)	8
	아이들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봐야 한다 ^d	371(1.05)	3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함께 사셔야 한다 ^d	390(1.00)	1	
나를 낳아주신 분만이 나의 부모님이다 ^d	320(1.20)	7	

주) 각 문항 끝의 서로 다른 문자는 요인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분류됨을 의미함.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주의(a), 가족 우선성 의식(b), 가통의 계승과 발전 의식(c)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혈연중심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d), 유전적 공유 이데올로기(e)

이었으며, 기능적 가족개념으로서 가족성원들과 사회를 위한 가족의 제 기능에 대한 요구도는 높은

수준인 반면, 현재 우리나라 가족이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

〈표 6〉 가족개념 및 가치관 척도들에서 얻은 총점, 표준편차 및 범위

(N=999)

가족개념 및 가치관	총점	표준편차	응답범위(척도범위)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 총점	9.98	4.67	1~20(0~20)
성원들을 위한 가족의 기능 요구도 총점	45.09	6.25	11~55(11~55)
성원들을 위한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 총점	36.31	6.56	3~55(11~55)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 요구도 총점	24.13	3.88	2~30(6~30)
사회를 위한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 총점	18.63	3.89	4~30(6~30)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총점	50.75	13.11	8~96(20~100)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총점	33.55	7.76	10~50(10~50)

가하였다. 한편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7〉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은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차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와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으며,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보다 보수적인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차와 관련하여 가족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중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청소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층이나 청·장년층이 노년층이나 청소년에 비하여 동거, 결혼, 이혼, 재혼 등을 통한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보다 많이 경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해석은 미혼자가 결혼이나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가족개념을 가지고 있는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노년층, 중년층, 청소년, 청·장년층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노년층이나 중년층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

하는 청소년이나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을 보다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반면, 가족가치관의 수준은 낮았으며,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와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는 중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하여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학생이 가장 낮고, 무직 또는 실직자가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수준은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 직종의 종사자가 더 높았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에서만 나타나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그 이상의 소득 층에 비하여 다양한 관계의 형태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덜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무직 또는 실직자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직 또는 실직자가 직업이 있는 사람에 비하여 가족생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가족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와 관련하여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는 기독교·불교·천주교신자가 무교 또는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수준은 불교신자가 가장 높았다. 즉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 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개념 및 가치관의 차이

(N=999)

가족개념 및 가치관 M(SD)		가족구성 다양성 수용도	성원들을 위한 가족의 기능 요구도	성원들을 위한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	사회를 위한 가족의 기능 요구도	사회를 위한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 수행도 평가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성 별	남성	9.31(4.76)	44.94(6.68)	36.53(6.52)	23.80(3.99)	18.79(3.95)	54.52(12.72)	34.66(7.58)
	여성	10.65(4.49)	45.33(5.77)	36.23(6.55)	24.48(3.73)	18.53(3.83)	47.19(12.46)	32.57(7.78)
	t	-4.55***	-.98	.72	-2.79**	1.05	9.17***	4.29***
연 령 대	10대	7.06(5.18)a	41.24(6.55)a	33.55(6.54)a	22.33(4.30)a	16.77(3.86)a	49.68(13.06)ab	33.69(8.83)b
	20대	10.78(3.89)bcd	44.25(5.43)b	36.48(5.42)b	23.46(3.46)ab	18.28(3.40)b	45.11(11.35)a	30.66(7.61)a
	30대	10.03(4.36)bc	45.72(6.45)bc	35.28(6.94)ab	24.32(3.85)b	18.26(3.70)b	47.74(11.22)a	32.43(7.52)ab
	40대	11.33(3.31)cd	45.80(4.78)bc	37.38(5.76)b	24.32(3.11)b	19.27(3.21)b	52.78(11.69)b	33.81(6.75)b
	50대	11.96(4.52)d	47.66(5.92)cd	37.06(5.85)b	25.92(3.58)c	19.01(3.69)b	57.68(12.73)c	37.11(6.30)c
	60대이상	9.32(5.51)b	49.00(5.46)d	40.22(7.14)c	26.45(3.58)c	21.68(4.36)c	59.31(14.61)c	37.49(6.41)c
	F	25.66***	32.00***	18.36***	23.69***	27.08***	29.05***	17.50***
결 혼 지 위	미혼	9.25(4.84)a	43.23(6.06)a	34.94(6.08)a	23.11(3.89)a	17.47(3.75)a	47.07(12.09)a	32.05(8.17)a
	초혼	10.68(4.17)b	46.52(5.79)b	37.33(6.37)b	24.79(3.61)b	19.39(3.40)b	52.87(12.75)b	34.75(7.11)b
	기타	10.17(5.43)ab	47.43(6.05)b	38.52(7.28)b	25.65(3.84)b	20.49(4.96)c	57.11(14.61)c	34.99(7.73)b
	F	10.73***	41.61***	21.40***	30.72***	41.64***	36.62***	15.45***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9.85(5.64)a	47.52(6.87)a	38.81(7.71)a	25.71(4.27)a	21.08(4.48)a	57.15(13.94)a	36.76(7.44)a
	고졸	8.65(4.89)b	43.50(6.27)b	34.71(6.60)b	23.38(4.07)b	17.81(3.69)b	51.52(13.33)b	34.39(7.82)b
	대졸이상	11.19(3.86)c	46.02(5.66)c	37.17(5.80)c	24.44(3.48)c	18.83(3.69)c	48.95(12.34)b	32.34(7.51)c
	F	35.05***	27.57***	24.76***	17.84***	30.79***	17.95***	17.47***
직 업	전문·행정관리직	11.24(3.69)b	46.74(5.13)bc	37.13(6.31)ab	24.94(3.04)bc	19.23(4.03)b	48.74(12.28)a	32.40(6.97)a
	사무직	10.47(3.59)ab	45.42(5.61)b	37.23(5.28)ab	23.70(3.27)ab	18.40(3.16)ab	49.58(10.68)ab	32.50(7.85)a
	판매·서비스직	10.80(4.03)b	45.44(5.54)b	36.01(5.92)a	24.39(3.43)ab	18.52(3.46)ab	51.31(12.85)ab	32.87(7.27)a
	농림어업·생산· 운수·단순노무직	11.05(4.30)b	45.39(6.81)b	36.48(6.70)a	24.85(4.19)bc	19.29(4.07)b	55.51(15.33)bc	35.98(7.14)ab
	전업주부	10.16(4.84)ab	45.20(6.70)ab	35.62(7.24)a	24.22(4.37)ab	18.34(3.26)ab	52.04(12.49)ab	36.00(6.86)ab
	학생	8.46(5.11)a	42.40(6.20)a	34.67(6.21)a	22.63(4.06)a	17.34(3.69)a	47.81(12.61)a	32.60(8.51)a
	무직·실직	9.67(5.65)ab	49.05(5.35)c	39.86(7.23)b	26.60(3.47)c	21.69(4.14)c	59.08(14.03)c	36.98(7.08)b
F	8.94***	20.19***	9.70***	17.50***	18.84***	11.98***	7.83***	
소 득 수 준	100만원 이하	9.31(4.86)a	45.40(6.16)	37.18(7.45)	24.47(4.01)	19.11(4.47)	51.40(12.66)	33.67(7.86)
	101~199만원	11.11(3.87)b	45.34(5.48)	36.38(6.36)	24.02(3.21)	18.63(3.16)	48.73(11.31)	32.51(6.94)
	200~299만원	10.72(3.93)b	45.81(5.82)	37.11(5.81)	24.45(3.41)	19.28(3.78)	51.34(12.84)	33.47(7.15)
	300만원 이상	11.33(4.25)b	45.98(6.00)	36.91(5.40)	24.60(3.70)	18.77(3.29)	50.05(13.34)	33.09(7.62)
	F	8.30***	.45	.52	.71	1.01	1.70	.81
종 교	기독교	9.93(4.54)	46.12(6.16)a	36.04(6.64)	24.56(3.86)	18.35(3.79)	48.77(12.59)a	33.52(7.56)ab
	불교	9.78(5.04)	45.27(6.52)ab	36.54(7.04)	24.42(3.86)a	19.12(4.06)	55.42(13.66)b	35.58(7.48)b
	천주교	10.49(4.22)	45.75(5.70)a	37.50(5.70)	24.27(3.65)ab	19.19(3.46)	51.00(11.61)a	33.38(7.51)a
	무교·기타	9.94(4.82)	43.80(6.16)b	36.11(6.31)	23.54(3.93)b	18.56(3.99)	50.92(13.37)a	32.99(7.96)a
	F	.63	8.99***	1.86	4.51**	2.34	9.31***	4.02**

*** p < .001 ** p < .01

주) 각 열의 서로 다른 문자는 Scheffe 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임.

주요 종교의 교리들은 가족의 기능에 대한 종교인들의 기대 및 요구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기독교나 천주교와 같은 서양 종교보다 불교와 같은 동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다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형태적·기능적 측면의 가족개념을 살펴보고, 가족관계 및 가족 형태에 관한 가치관으로서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점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민의 가족개념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형태적 가족개념은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순수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한 개념에서 벗어나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점차 수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성애 커플, 공동체가족, 친지 등과 동거하는 노인 단독가구 등은 가족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가족 구성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규범적인 성역할에 근거한 가족개념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지적 측면의 가족개념에서는 이혼, 재혼, 입양 등으로 형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도 행동지향적 측면의 가족가치관에서는 혈연중심의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간에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와 획일적 가족규범이 성원들에게 매우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간 '결손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소외시

켜온 편부모가족, 계부모가족, 미혼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교와 사회에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내용도 인지적·개념적 차원의 지식전달에 그치지 않고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치규범 및 행동지향적 차원의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적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가족개념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도에 비하여 수행도 평가가 낮아 개선이 요구되는 기능은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유대 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 기능, 경제질서 유지 기능이었으며, 성적 욕구의 통제 기능, 자녀출산과 종족보존 및 사회성원 충원 기능, 소비 기능, 노동력 제공 기능 등은 요구도에 비하여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처럼 가족이 필요로 하나 그에 대한 수행이 못미치거나 넘치는 기능들은 모두 가족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족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한 예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성원들간의 친밀감과 상호배려, 개방적 의사소통, 함께 시간 보내기, 평등한 역할 분담, 가치관과 의사결정의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키워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용창출의 극대화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법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노인부양 및 육아 등 그간 개별 가족이 수행해온 사회보장 기능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학교와 사회에서는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개인의 개념과 가치관이 성별, 연령, 결혼 및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등의 사회인구학적 하위집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사회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양적 결과와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법을 통하여 개인의 주관적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연구한다면 '가족'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점

에 보다 근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서울시민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은 신수진(199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주의, 가통의 계승과 발전 의식, 가족 우선성 의식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세 요인 모두 신수진(1998)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부계혈연의 배타적 가족주의 평균점수는 2.85에서 2.23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에는 10대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수진(1998)의 연구대상은 20~60대의 성인들로 10대가 빠져있어 연구대상의 연령범위에 따른 차이가 결과의 상이함을 초래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적 흐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신수진(1998)의 연구가 이루어졌던 3년 전에 비해 서울시민의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이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 성원들의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을 주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고정자(1979). 여대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인가정학회지*, 17(2), 57-81.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청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인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명훈, 정영운(1983). *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순옥, 조희선, 류경희, 유현정, 이나미(1995). 가족 이기주의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68-77.
- 김주수, 김희배(1986). *가족관계학*. 서울: 학연사.
- 박민자(1995). *가족의 의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박혜인(1989). 한국여성의 가족주의가치 분석: 대구, 경북 지역의 도시, 농촌 비교. *효성여대 여성문제 연구*, 17.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Ⅲ: 아동학, 가족학. 서울: 교문사.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영주(1990). *한국가족의 기능 분석: 가족내 행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은숙, 육선화(1995). *가족상 연구의 접근법 및 그 적용*. *대인가정학회지*, 33(1), 111-123.
- 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최준식(1998).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1: 무교, 유교, 불교*. 서울: 사계절.
- 함인희(1995). *사회변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홍은표(1984). *한국 도시가족원의 가족 기능에 대한 기대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rnardes, J. (1988). Founding the new "family studies." *Sociological Review*, 36.
- Cheal, D. (1991).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Eysenck, H. J.(1964). *The psychology of politics*.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1981). *Social psychology(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 Gubrium, J. & Holstein, J. (1990). *What is family?* Mountain View, CA: Mayfield.
- Hess, R. & Handel, G. (1959). *Family worl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lein, D. M. & White, J. M. (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